



# 건축문화 시랑

Vol.011 10.Oct 2010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건축사회 News 2010.10

011 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 시론

화정동 재건축, 도심재생의 시적? 신태양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의 사회적 대응\_진 정

###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_이영규

###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_조용준

### 전통건축

누교(樓橋)의 상징에 관하여\_남호현

### 그리스 터키 여행기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_이순미

### 설계경기

진도 조급시장 건립 설계공모

### 인터뷰

희망을 가꾸겠습니다\_김원주 전북도지사

### 회원탐방

건축은 시대를 대변하는 척도\_김행범 건축사





2010년 10월 10일(일)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여덟 번째 이야기: 일본의 '요코하마'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 첫번째 이야기 - 도시(City)  
(2010년 3월호에 게재)
2. 두번째 이야기 - 광주의 공간발달사  
(2010년 4월호에 게재)
3. 세번째 이야기 - 광주의 시가지계획  
(2010년 5월호에 게재)
4. 네번째 이야기 - 싱가포르  
(2010년 6월호에 게재)
5. 다섯번째 이야기 - 브라질의 '쿠리찌바'  
(2010년 7월호에 게재)
6. 여섯번째 이야기 - 캐나다의 '밴쿠버'  
(2010년 8월호에 게재)
7. 일곱번째 이야기 - 미국의 '시애틀'  
(2010년 9월호에 게재)

### 창조와 실험의 도시: 요코하마(横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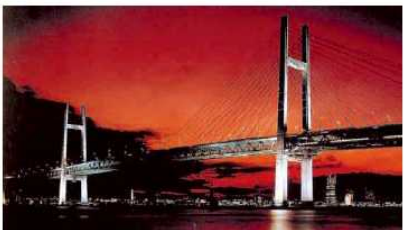
일본에서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고 하면 관동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는 요코하마이며, 관서지방은 고베라고 말하곤 한다. 고베는 한신 대지진 이후 새로운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기에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요코하마가 관동지방만이 아닌 일본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거론할 수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요코하마가 걸어온 도시만들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다. 요코하마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에서 재건에 성공하여 번영을 누렸으나 오히려 그 번영이 도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70년대 이후부터 커다란 도시문제를 갖게 되었다.

특히, 미쯔비시조선소로 대표되는 공장들이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요코하마가 동경의 위성도시가 되지 않고 특성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이전하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개발의 비전을 수립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100년전 7,200개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졌던 도크를 현재는 보존하여 부수와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크아드의 전경: 과거 미쯔비시조선소에서 선박을 만들던 도크이었으나 그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여 이국적인 모습을 연출하게 만들었고 광장에서는 음료수와 맥주를 사먹을 수 있으며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죽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요코하마가 보여준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추진과정은 다른 모든 도시들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요코하마의 다양한 매력 때문에 '요코하마는 젊음이의 도시', '빛의 도시', '먹거리의 도시', '예술의 도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도 요코하마를 일본에서 새로운 도시만들기를 추진한 성공사례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창조와 실험의 도시'라고 칭하고 있다.



베이브리지의 야간경관 모습: 베이브리지는 일본에서 가장 큰 사장교이다.



미나토미라이21의 야경 경관 모습: 일본에서 가장 높은 70층의 랜드마크타워건물을 중심으로 고층건물이 잘 조화되어 건설되었다. 요코하마의 야경 경관이 아름다워 '빛의 도시'라 칭하기도 한다.

### 도시재생을 위한 과감한 실험: 미나토미라이21(みなとみらい21)

요코하마의 도심지역인 항구일대가 미쯔비시조선소를 비롯한 공장들이 즐비하게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발전에 제해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어렵게 미쯔비시조선소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요코하마는 이전할 조선소부지와 바다를 매립하여 도시를 새롭게 탈바꿈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핵심 프로젝트가 '미나토미라이21'이라는 사업이다. 미나토미라이21이란 미나토(항구)와 미라이(미래) 그리고 21이라는 용어의 합성어이다. 요코하마는 새로 개발될 프로젝트의 이름도 시민 공모에 의해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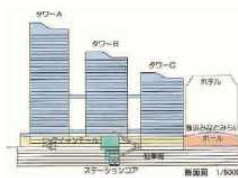
미나토미라이21의 핵심 사업은 6개(항만재생 계획, 뉴타운개발, 지하철 연장사업, 고속화도로 확장, 베이브리지건립 사업, 수변정비계획)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쯔비시조선소 일대를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심기능을 개편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요코하마는 동경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국제업무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핵심 사업이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새로운 국제비즈니스단지를 개발하고 있었던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싱가포르의 도심활성화프로젝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찌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이었다.

###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창조적 실험: 주민참여와 도시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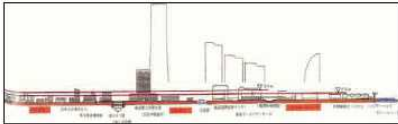
요코하마가 새로운 도시만들기에 대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하나는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개발은 미나토미라이21에서도 보듯이 개발자구의 명칭을 정하는 데도 시민공모를 통해 추진하였고, 쇼핑거리인 모토마치거리(元町街), 바사마치(馬車道)거리 등도 주민의 참여 속에 도시만들기를 추진하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대표적인 도시로 요코하마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도시만들기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요코하마대학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붐이 일고 있었고 행정과 대학 그리고 주민들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토마치거리의 풍경



미나토미라이21의 핵심지구내 건물들 오피스건물의 도시 디자인적 개발 구상도: 건물의 스카이라인과 지하연결통로 그리고 지하철역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나토미라이21지구의 중심지 도시디자인 개발구상도: 스카이라인과 지하연결통로의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개발구상속에 개발건물이 들어섰다.

한편, 미나토미라이21을 개발하면서 요코하마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수법인 도시디자인은 공공에서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구상을 그린 후 민간이 개발하는 부지에까지 매우 구체적인 디자인적 요소를 요구한다는 점이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점이다. 즉, 지금까지 도시개발방식은 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된 후 공공은 도로를 개설하고 부지를 판매한 후, 민간이 개발계획을 갖고 오면 위원회를 거쳐 인허가를 해주는 방식에서 일본이 먼저로, 공공이 보다 적극적인 공간개발의 비전을



도시디자인의 설계자침에 따라 개발된 미나토미라이 지하철역의 개발된 모습: 벽면에는 요코하마의 역사를 독특하게 재현해 놓았다.



미나토미라이21 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 개최되었던 엑스포행사장의 모습: 아시아문화전당이 땅파기 등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시하고 민간에게는 제시된 비전에 따라 개발을 유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인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어찌 보면 영미에서는 일찍부터 추진해왔던 도시개발 방식이었으나 일본에서 대규모로 추진된 사례는 아마도 미나토미라이21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은가 한다.

최근 요코하마는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비전으로 창조성에 주목하여 일본에서도 가장 앞선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끝이 없이 변신하는 요코하마야말로 도시전문가에게는 교과서 같은 도시이며, 도시와 건축분야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한 번 방문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jm7192@paran.com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1. 첫번째 이야기 - 역사도시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일까?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이 글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가 월간 '조선대학교 소식'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재구성하여 재공하였으므로 해 세계 각국 역사도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사도시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활력을 만들고,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역사도시에 사람들을 모으려게 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근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철저히 훼손된 우리 도시들도 유럽의 역사도시들 처럼 사람을 모이게 하는 매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 여행은 학습탐험이다.

내가 도시매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강당에 처음 서면서 우연히 보따리 책 판매상에게서 구입한 DESIGN OF CITIES (Edmund N Bacon 저)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부터이다. 처음에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역사 도시들을 가 본 후에 실감 나는 강의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역사도시의 여행을 시작 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취미가 되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얇은 지식도 전공책에서 보다는 역사도시들의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것이 더 많다는 점에서 나는 여행을 교과서 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학습 탐험이라고 부르며, 후학들에게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매력을 가진 도시들이 수 없이 많고, 내가 경험한 도시는 이중 극히 일부에 불과 하지만, 나는 이들 도시들의 탐험을 통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있는 역사도시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도시 매력의 원천으로서 축이나 초점이 있고, 이것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선학들의 주장을 실감하게 되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 한편의 책이라면, 나는 겨우 내가 서 있는 한 페이지만을 보고 말하는 꼴이 되겠지만, 도시는 매력을 만드는 축이나 초점으로서의 광장과 거리, 그리고 역사가 모자이크 된 건축 등이 있어야만 다양한 감동이 만들어 진다고 믿고 있다. 나는 역사도시들을 여행 할 때 마다 늘 새로운 감동을 경험 했는데, 로마시대에 건설된 스페인의 틀레도 다리에서는 투구를 쓴 로마병정들이 말을 타고 능숙하게 입성하던 로마시대 영화의 한 장면이 불현 듯이 겹치면서 감동을 주었고, 로마의 스페인 계단에서는 로마의 휴일에서의 오드리 햇번의 모습이 겹쳐 감동을 주었다. 또 프라하의 구시가 골목길에서는

축축적으로 전개되는 연주를 관람하는 몇 명 안되는 관객들과 함께 치는 나 스스로의 박수소리에 감동을 했고, 작은 교도라고 부르는 다카어바에서는 아침영업을 위해 상점 앞의 수북히 쌓인 눈을 쓸던 식당 종업원이 길을 묻는 이방인에게 는 치우는 것도 잊고 지도를 가져와서 길 안내를 하던 친절함이 감동을 주었다.



체코 프라하 치스키 크롬로프의 골목길

### 도시를 도시답게 하는 것은 건축이고, 건축을 건축답게 하는 것이 도시이다.

나는 역사 도시를 통하여 도시매력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대한 행위와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며, 감동을 주는 결과임을 알았다. 아울러 도시를 도시답게 하는 것은 건축이고, 건축을 건축답게 하는 것이 도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조대성). 특히 도시는 부를 축적하고 고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집단과 계층이 갖고 있는 시민의식을 하나로 묶는 도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공간이라는 물리적 틀(리처드 로저스)이 있어야 감동 있는 매력이 생긴다는 믿음도 갖게 되었다. 또 이러한 감동을 주는 매력은 고대 역사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요코하마, 바르셀로나 등의 도시에서 되살아 나고 있음을 보면서 역사흐름에는 유사함이 존재한다는 에드먼드 베이컨의 말도 믿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웃에서 일어난 일처럼 곧바로 알 수 있고,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도시도 이미 가 본 것처럼 잘 알고 있는 느낌을 갖는 고도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비약적 발달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고속이동시대에 살고 있다. 이 같은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국경을 넘는 교류와 여행을 보편화 시키면서 도시공간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도시 투어리즘 시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함께 여행자들이 여행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행지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여행패턴이 되면서 도시매력은 도시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거기에 사람의 지향성 변화도 쾌적함이나 아름다움의 추구가 변하고 있고, 상품의 구매를 결정하게 하던 상품의 성능(기술)과 가격이 평준화 되면서 도시공간 자체가 상품환 경이 되어 사람을 모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근래 EU국가들이 '도시 질은 그 자체가 자원임과 동시에 경제적 번영에 공헌한다. 21세기는 도시 투어

리즘은 건축물로 꼭 채워지면서 숨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내몰려 그 안에서 자기를 끼리만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는 붕괴 되체, 계층분화가 형성되고 있다.

거리에서 활력이 사라지면 도시 커뮤니티는 붕괴되고, 사람들의 감흥도 사라지게 되며, 이는 도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 도시들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시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매력의 원천은 무엇일까를 역사도시들을 통해서 재조명해 보는 것은 도시 투어리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도시라고 할지라도 도시매력을 만드는 원천으로서 축이나 초점을 음미해 보는 것은 새로운 시각의 여행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도시란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고밀도로 모여 사는 장소로서 무한한 해석과 독해가 있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감동을 주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도시에서 감동 있는 매력 찾기는 아주 재미있는 여행테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 만큼 감동을 준다. 여행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 감흥도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여행은 여행 전에 대상지에 대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확인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시시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알고 가면 새로운 관점과 느낌이 생긴다.



프랑스 파리아경

파리 콩코드 광장은 루이 15세의 기마상을 세우기 위해 만든 곳으로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식이 거행된 곳이지만, 이들 등 1,343명이 처형된 장소이기도 하다. 광장 가운데에 우뚝 솟은 23미터의 3200년 된 룩스르 신전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람세스 2세 사원에 있던 것을 1830년에 모하메드 알리가 프랑스왕 루이 필립에게 기증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다른 광장과는 또 다른 감흥을 느낀다. 또 여행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비수기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작은 것들도 보이고 음미 할 수도 있으며, 더 경제적 여행도 할 수 있다. 또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느껴지는 것이 적어지고, 자유스러움을 만끽하는 자유도 사라진다.

### 여행은 새로움을 경험하고, 수많은 교류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하는 힘을 생성시킨다.

여행은 자기가 살고 있는 페이지에서 또 다른 페이지로의 이동이다. 이동된 페이지에서 감흥이 없으면, 피곤할 뿐이다. 여행은 시험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새로움을 경험하고, 수많은 교류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하는 힘을 생성시킨다는 것만은 공통적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작은도시들을 좋아한다. 작은 도시들은 마음 내키는대로 걸어 다녀도 긴장감을 느끼지 않으며, 길 잃을 염려도 없다. 또 위압적인 건축물은 물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돈 많은 사람들만이 드나드는 계층문화도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사람냄새가 나는 인정이 있고, 절체성 있는 소박한 문화도 있다. 작은 도시야말로 슬로우 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어 좋다.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죽을 때 까지 여행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행운을 타고난 인생이라고..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스페인 틀레도 다리



일본 교토



체코 프라하 궁전

리즘이 중요한 도시공헌의 요소이다. 도시 투어리즘을 행하기 위해서는 도시매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도시매력은 역사적 자산과 그에 조화 되는 새로운 개성에 의해 형성된다. '먼서 매년 1~2개 도시들을 문화수도로 지정하고 가꾸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도시들은 그간 경제적, 산업적 합리성에 매몰되어 도시는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장소가 되면서 역사적 자연적 자원은 파괴되었고, 공공공간은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리처드 로저스).



2010년 10월 10일(일)

# 누교(樓橋)의 상징에 관하여

남 호 현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0년 4월부터 전통건축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이번 호에는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남호현 교수의 원고를 통해 누교(樓橋)의 상징에 관하여 알아보자 한다.

누교(樓橋)의 사전적 정의는 다리 위의 누각이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즉 루는 누각의 준말로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높이 지은 다락집을 의미한다. 하부에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 하천으로부터 저절로 높게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는 형상의 구조물이 되는 셈이다. 결국 누교는 하천 위 다리를 통해 건너는 통로의 기능과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는 누정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2중적 코드의 복합적 건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교가 사찰에서 조영되는 경우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가지면서 또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속세와 불계의 경계에 놓여 불교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존 누교(樓橋)

조선후기까지의 것으로 현존하는 사찰에서의 누교는 4개정도 조사되는데, 모두 전남 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곡성 태안사 능파각, 순천 송광사 극락교와 청량각, 순천 송광사 삼청교와 우화각, 구례 천은사 피안교와 수홍루 등이 그것이다. 태안사의 '능파란 계곡과 물굽이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는 뜻'도 있지만, 성현이나 신선의 걸음이 우아하고 가벼움을 형용한 말이다. 송광사의 극락교는 극락세계로 들어간다는 다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청량각은 세속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맑히며 씻고 가라는 뜻에서 지은 누각이다. 송광사의 '삼청'이란 용어는 원래 도교에서 옥청, 태청, 상청의 삼청을 가리키는 말로서, 도교에서의 최고신, 혹은 신들이 사는 영역을 말한다.



태안사 능파각



송광사 극락교와 청량각

삼청교는 일명 능허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능허'란 모든 것을 비우고 하늘로 오르다는 뜻이며, '우화'라는 명칭은 소동파의 유명한 책봉가 가운데 나오는 우화등산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날개가 생겨 하늘로 날아올라 우인 즉 신선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신선이란 금신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속박을 벗어



송광사 삼청교와 우화각



천은사 수홍루

나 자유자재로 해탈의 경지에 노니는 금빛 신선, 즉 부처님을 뜻한다. 결국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비우고 허공으로 건너올라 신선과 같이 모든 속박을 벗고 걸림 없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상태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천은사의 피안교란 이 다리를 건널으로써 생사 번뇌로 가득 찬 속세를 떠나 열반의 언덕에 도달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수홍루란 무지개를 드리우는 누각이라는 뜻으로 계류가 가로지르는 주변의 뛰어난 경관의 모습을 건축의 명칭 안에 담고 있다.

## 누교(樓橋)의 상징성

이와 같이 사찰의 누교에 사용된 명칭 중 피안, 극락 등은 불교와 직접 관련된 이름이고, 삼청, 능파, 능허, 우화 등은 도교적 색채가 강한 이름이다. 청량과 수홍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시킨 예로 분석된다. 도교에서 그들의 이상세계를 선계라 하고, 불교에서는 불국정도, 또는 극락세계라 하는 등 이름을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양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어떤 면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도교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대일의 인식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 길에는 하나에 대한 다른 하나의 위라든가, 둘 사이의 상대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불이의 개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도교적 이름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의 다리 이름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배경의 하나로 생각되기도 한다. 결국 진입에 초입에 놓이게 되는 누교의 상징은 도교의 신선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특히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직접 관련을 맺는 다리에서는 불교의 극락이나 이상세계, 그리고 열반의 상태를 위하여 세속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진리와 광명이 충만한 불계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다리 위의 누각은 그러한 속세의 때를 씻어 버린 상태에서 진리의 최고 경지인 신선의 마음이나 자태까지 승격하여 이상세계의 영역에 이른다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뜻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순천 선암사의 승선교와 강선루에 정확히 표현된다. 승선교와 강선루는 비록 누교는 아니고 각각 별도로 존립하는 구조물이지만, 누교에서 보여주는 다리와 누각의 상징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즉 직역을 한다면 승선교는 신선이 올라간다는 뜻



월정교복판교각복원

이고 강선루는 신선이 내려온다는 뜻으로, 의역을 한다면 다리에서 깨끗이 정화된 신선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누각의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반갑게 맞이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고대문학에서는 황제의 고귀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누 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조법식」 권 제1 '루조'에 의하면 「사기에 방사가 무제에 아뢰기를 '황제는 5성과 12루를 만들어 신인을 기다렸다고 하니나라 하니 곧 50장이나 되는 명명대 정간루(井幹樓)를 만들었다'라고 하여 중국에서도 루는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함이 아닌 신선이 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용자의 고귀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결국 교와 루는 인간의 세계와 신선의 세계를 상징하며 누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이상세계의 근본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리는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불교에서 다리는 속계와 법계를 연결시켜주는 경계를 상징한다. 사찰에 진입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누교는 계곡 위를 건너는 기능적인 효용성과 함께 불교의 이상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사바세계와 피안정도를 경계 짓는 기능과 함께 두 이질적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징적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물과 직접 관련을 맺는 다리에서는 세속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진리와 광명이 충만한 불계로 나가는 인간의 수행과정을 상징하고, 반면에 다리 위의 누각은 그러한 속세의 때를 씻어 버린 상태에서 진리의 최고 경지인 신선의 마음이나 자태까지 승격하여 이상세계의 영역에 이름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기능주의에 편중된 무미건조한 현대건축 계획에 가치있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문헌에 나타난 누교와 누교지

백제 무왕시대(600~641)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전북 익산 미륵사 터의 강당지와 북쪽 승방지 사이를 잇는 회랑형식으로 된 다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건물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구조물은 하부는 석조로 된 다리이며, 상부는 목조로 된 회랑 형식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익산사에서는 미륵사 복원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복원에 따른 이 누교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회랑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 월정교지의 누교가 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경덕왕 19년(760)에 "2월에 궁궐 안에 큰 못을 파고, 또 궁궐 남쪽의 문천(蚊川) 위에 월정교(月淨橋)와 춘양교(春陽橋)의 두 다리를 놓았다. (二月 宮中穿大池 又於宮南蚊川之上 起月淨教釣橋)라는 기록을 통해 궁궐 내의 하천에 다리를 건설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월정교는 1985년부터 1986년에 걸쳐 수차례 실시되었던 발굴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그리고 일정교는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 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유곽이 파악되었다. 또 다른 기록으로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원성왕(元聖王) 14년(798)에 "봄 3월에 궁궐 남쪽의 누교(樓橋)에 화재가 나고 (十四年 春三月 宮南樓橋災)라는 기록은 궁궐 내에 설치된 다리 중에는 회랑형식의 건물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누교는 는 이미 전술한 월정교(月精橋)였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 V.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 다섯번째 이야기 - 이스탄불 2

이순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1. 첫번째 이야기 - 에피타브로스, 미케네, 올림피아 (2010년 6월호에 게재)
2. 두번째 이야기 - 델포이, 아테네 (2010년 7월호에 게재)
3. 세번째 이야기 - 히에라폴리스, 파우살레, 에페소 (2010년 8월호에 게재)
4. 네번째 이야기 - 디디마, 이스탄불1 (2010년 9월호에 게재)

건축사 유럽여행 모임인 유군회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0박 11일부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와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먼저 그리스의 건축문화를 2회에 걸쳐 소개하고 이어서 터키의 건축문화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스탄불은 유럽이나 아시아 각국의 도시와는 사뭇 다른 도시 풍경을 가지고 있다. 뾰족뾰족한 첨탑과 돔들이 하늘을 받치고 있으며, 도시 전체에 비잔틴 시대와 콘스탄티노플 시대의 건축물이 가득 들어차 있어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국적 정취에 흠뻑 빠져 있노라면 어느 새 가슴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어 그동안 살을 바베 살았던 조급한 마음을 슬며시 내려놓게 된다.

### 히포드롬 광장 - 이스탄불에서 가장 뛰어난 유적지

동로마 제국 당시 원형경이었던 히포드롬 광장에는 이스탄불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념비인 이집션 오벨리스크가 있다.

이 오벨리스크는 BC 15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는 이 오벨리스크를 BC 390년 이집트 아몬신전에서 가져와 현재의 위치에 세웠다. 연한 핑크색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의 무게는 약 300톤이며, 원래의 높이는 32.5m였으나 수송 과정에서 밑 부분이 깨지는 바람에 현재는 20m의 높이만 남아 있다.

히포드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념비는 BC 479년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세워졌던 뱀기둥이다. 세 마리의 뱀이 몸을 서로 꼬고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기둥은 원래의 높이가 6.5m였지만 현재는 5m만 남아 있다.



이집션 오벨리스크



뱀기둥

히포드롬 광장 중앙 부에는 콘스탄틴 돌기둥이 있다.

이 기둥은 콘스탄틴 7세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인데, 높이가 32m이다. 원래 외부에 청동이 입혀져 있었지만 13세기 초 라틴 군에 의해 떼어졌고, 1894년 지진에 의해 심하게 부서졌다가 최근에 다시 복구되었다.

히포드롬의 독일 분수도 눈여겨 볼 만하다. 독일 분수는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술탄 압둘하미드 2세와 이스탄불 시에 보낸 선물인데, 팔각형의

지붕에 돔 형태의 내부를 가지고 있는 건물 안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독일에서 제작된 이 분수는 1898년 현재의 자리에 조립하여 세워졌다.

이와 같이 히포드롬 광장은 고대도시의 중심부로서 기념비적인 유물들이 주위에 있는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풍경을 형성하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뛰어난 유적지라 할 수 있다. 이곳은 터키인뿐만 아니라, 각국의 여행객들에게도 심터를 제공하는 훌륭한 공원 역할을 하고 있다.

### 돌마바체 궁전 - 규모와 화려함의 극치

돌마바체 궁전의 이야기는 근위병으로부터 시작해 야겠다.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 분수가 있는 정원에서 우리는 'This is my garden'을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궁전을 지키는 근위병은 한 치의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굳건히 서 있었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눈조차 깜박이지 않았다. 짓웃은 마음에 계속 쳐다보았더니 급기야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은 전혀 깜박이지 않았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애잔한 마음이 들어 우리는 결국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말았다.



돌마바체 궁전

궁전을 들어가기 위해 각국의 여행객들이 길게 늘어선 줄에 동참하여 입장 순서를 기다렸다. 관람객들은 지정된 카펫만 따라가며 관람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마바체 궁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귀한 보물에 모두 탄성을 지르며, 이처럼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조상을 지닌 터키인에 대한 부러움도 생겼다. 특히 그랜드 홀에 있는 상드리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선물한 것으로 무게가 4.5톤이며 750개의 촛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크기와 화려함은 기가 질릴 정도였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배치한 돌마바체 궁전은 주위 풍경과 어울려 더욱 아름다웠다.

### 톱카피 궁전 -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



톱카피궁전 모형도

톱카피 궁전은 이스탄불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 할 수 있는데, 약 4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행정 중심지였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는 각 나라에서 술탄에게 보내 온 보물, 도자기, 식기, 옷, 장신구, 무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술탄의 초상화 전시실과 같이 다양한 테마의 전시실을 구비하고 있어 각종 희귀 보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데, 특히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 하는 86캐럿 크기의 스톤 다이아몬드가 인상적이었다. 이 곳의 보물 두 개만 팔아도 현재 터키의 재정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니, 그야말로 이 곳의 보물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녔다 할 수 있겠다.

### 그랜드 바자르 (Grand Bazar) 시장

여행의 필수 코스는 바로 시장(市場)이다.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 시장은 약 3,500개의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을 연상 하게 한다. 귀금속, 그릇, 조명, 각종 장식품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관심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아마도 물건을 사지 않은 미안함 때문에 부담감이 더 배가되었으리라. 하지만 돈을 주지 않고도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랜드 바자르 시장의 북적거리는 생기가 저절로 내게 전이되고 있음이 느껴지자, 나도 모르게 슬며시 미소가 새어 나왔다.



그랜드바자르 시장

### 보스포러스(Bosporus) 해협

보스포러스는 그리스어로 '말소가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마르마라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길이는 약 31.7km이다. 그런데 마르마라해에서 흑해 쪽으로 흐르는 물은 바다 표면으로 흐르고, 흑해 쪽에서 마르마라해 쪽으로 흐르는 물은 40m 깊이는 바다 속으로 흘러 두 해류가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흑해와 마르마라해의 염도와 높이가 다르다 한다.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다.

아시아 쪽 해협에는 별장들이 배치되어 있고, 유럽 쪽 해협에는 그도 화려한 건축물과 블루모스그의 첨탑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각기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터키 인들은 아시아사 보다는 유럽식을 더 선호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다.

유람선을 타고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며 우리의 뺨을 스치고 달리는 바람과 함께 우리는 터키의 마지막 날을 마음껏 누렸다. 10박 11일 동안의 그리스와 터키 여행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정이 흠뻑 들어버린 우리는 눈앞으로 다가온 이별의 아쉬움을 감춘 채 서로 가족처럼 연인처럼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날렵한 형태의 갈라타 브릿지를 다음에는 꼭 도보로 건너리라 생각하면서 보스포러스와 이스탄불을 눈에 담았다.



갈라타 브릿지와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이로써 10박 11일 동안 다녀온 그리스, 터키 여행을 마친다. 개인적으로 이 여행은 나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멤버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여행을 끝낼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 동안 그리스, 터키 여행을 읽어주시는 분께 감사드리며 지면 관계상 여행지를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유군회 여행 참가 회원)

강남구, 정영수, 김종일, 이순미, 정동원, 정영철, 김기준, 안성섭, 정영범, 정관성 이상 10명의 건축사

migaon@hanmail.net



진도조금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새로운 고객의 유입을 위하여 진도의 상징적 특성을 살린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5일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탈피하여, 진도의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특색을 살리고 시장기능의 활용도를 최대한 증대시키고자 시행된 "진도 조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경기 공모결과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적으로, 거평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우수작, (주)상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총 5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상 1층의 연면적 4,266.37㎡ 규모로 건립된다. 당선안은 어울림의 장(場), 만남의 장(場), 상징(象徴)의 장(場)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행위를 담는 활동적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 진도 조금시장 건립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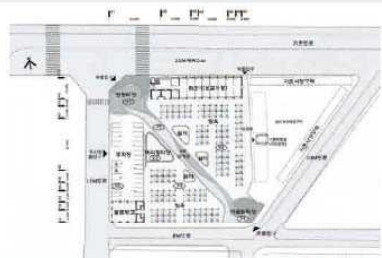
▲ 조감도

**당선작**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대지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32-8번지 일원  
 대지면적 : 5,318.00㎡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로현황 : 북측 25M계획도로, 남측 8M도로, 동측 10M도로, 서측 12M도로  
 연 면 적 : 4,266.37㎡  
 건축면적 : 3,078.36㎡  
 건 폐 율 : 57.89%  
 용 적 율 : 80.22%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주요마감 : 알루미늄복합판넬, 압출성형시멘트판, 친환경합성목재, 하이퍼 세일링 방식골조/막구조(PVDF)  
 주차개요 : 30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 시장내부 투시도



▲ 일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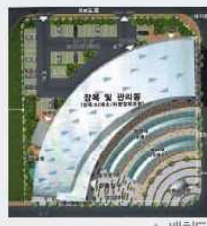


▲ 명랑마당 투시도



▲ 조감도

**우수작** 거평 건축사사무소 정관성 건축사



▲ 배치도



▲ 부분 투시도



▲ 조감도

**가작** (주)상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권혁승 건축사



▲ 배치도



▲ 부분 투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 건축·도시·환경 정책



# 희망을 가꾸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본 건축문화사랑 9호 신문(8월 10일자)에 '민선 5기, 광주·전남·전북 자치단체장 정책을 알아보다.'라는 주제로 3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을 정리하였으며, 이번 출범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3개 시도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건축·도시·환경에 관련 된 자치단체장 정책 및 공약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를 만나 그의 민선 5기 정책을 알아보았다.

김완주도지사  
전라북도



## 1. 민선 5기가 출범한지 3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발을 일구는 농부의 심정이었다.

도민들께 약속을 드린 일자리 창출과 민생문제 그리고 새만금 등 3대과제를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과 조직개편, 그리고 나본사유치, 국가예산 등 주요 현안이 발등의 불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도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민생과 일자리, 새만금을 중심으로 10개 분야 100대 과제 마련과 함께 이에 따른 조직개편도 마무리하고 2년 연속 국가예산 5조원시대를 가져오기 위한 순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본다.

## 2. 민선5기 도정방향으로 10대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선5기 전북도정은 민생과 일자리 새만금을 중심으로 10개 분야, 100대 과제를 마련했다.

이는 민선4기에 마련된 100년 이상 먹고 살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과 완성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듯 일자리와 민생, 새만금에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식품·풍력·태양광·부품소재 등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둔 것은 서민들의 살림살이 개선과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달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62.2%의 도민들께서 민생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셨다.

다른 하나는 전북의 가장 큰 성장동력인 새만금 사업의 내부개발 속도를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도민들의 주문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민생, 새만금 그리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및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3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농업·문화관광·녹색환경·동부권 개발 등 67개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100대 과제는 계속사업 59개, 신규사업 41개로 신규사업 대부분이 태양광산업의 허브구축, 자동차부품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수송레저용 미래형 선박제조기반 구축, 인쇄전자 집적화단지 등 대부분이 미래전략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신규사업들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3. 민선 4기에 추진하신 건축 관련 정책 중 기억에 남는 정책과 5기 추진예정인 건축 관련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민선4기에 사회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생활 불편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정주기반의 토대를 다지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나아가서 소득계층의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적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06년부터 매년 7~8백호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3,171호의 주택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

선한 바 있다.

'10년도부터는 물량을 대폭 늘려 매년 1,600호(40억)씩 '14년까지 6,400호(160억)를 개·보수하는 등 2014년까지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비가 250만원으로 한정되어 비교적 소규모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10년도에는 보수규모가 큰 부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협의 1,137호(68.2억원)의 주택을 호당 600만원을 투입, 개·보수가 진행중이다.

민선5기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4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분야 민생안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도의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설명회

## 4.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공약을 보면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 공간 100개 조성'과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확충', '관광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등 여러 건축 관련 분야의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각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자식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민선4기에는 63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정서와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민선5기에도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접근성이 편리하고 생활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속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활동



금융소외계층 특례지원 방문



전북경제살리기 운동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등 생활권 문화공간 100개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문화적 활동을 영위하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확충은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내 14개 전 시·군 장애인체육시설 1개소씩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정읍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전주와 익산 2개소 준공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11년에 1개소(남원) 준공과 함께 2012년 1개소, 2013년 2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 5개소를 건립하는 등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정부의 중국인 비자발급 완화 조치로 인한 국·내외의 관광여건 변화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체류형·단체형 관광객 수용을 위한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2015년까지 10,000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26개의 관광숙박시설이 있으며, 2011년에 5개소, 2012년 3개소, 2013년 1개소, 2014년에 1개소로 총 13개소가 건립추진중이다.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무주관광호텔·비응도관광호텔·강천산도 등 3개 대형 관광숙박시설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억원이상 관광숙박시설 투자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중저가 호텔에 외국인 기호에 맞는 쇼핑, 음식, 노래방까지 완비된 중저가형 호텔이 유치되어 우리도에 오는 관광객이 잠자는 숙박 시설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 5.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도는 한 스타일의 공간인 한식, 한지, 한옥 등을 포함한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차별적이며 세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민선4기 시작부터 공약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신시 배수관

있는 전통화도시조성사업은 한스타일 전략화 등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주 전통화도시 조성사업(65개 17,109억원 /'06~'26년)으로 '10년까지(07~'10) 한스타일진흥원 건립(175억원)을 위한 건축공사 터파기, 골조공사를 착공했으며, 한옥마을 문화경관 조성(119억원) 6공구 중 4공구 완료(골목길, 담장, 지중화사업 등), 전통문화 콘텐츠 확충 (소리·완판본·부채 문화관 건립완공), 한지산업지원센터 건립 완공 등에 총355억원(국 180, 도 60, 시비 115)이 투입되었다.

앞으로 전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내 지자체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 콘텐츠 발굴이 산업기반과 함께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전통문화를 연계하고 한스타일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비즈니스 모델지역으로 만들어 관광객 유치 및 해외진출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6. '미스터 일자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매년 전국적인 건축·건설관련 일자리는 줄어든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축·건설관련 일자리 창출방안을 무엇입니까?**

건설관련 일자리는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시켜 수요액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도모와 건설사업비 확보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SOC사업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5기 4년간 건설관련 일자리 창출은 3,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협회(총합, 전문, 설비)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한 유관기관 발주계획 공유하고 유관기관 발주대행공사 파악대처, 제도개선 통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또 지방건설심의 위원회 개최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내용(분할발주: 설계 및 사업입안 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견도/ 공동도급: 지역중소 건설업체와 49%이상 공동수급체 형성/ 하도급: 외지업체 도내 건설 수주시 50%이상 하도급/ 지역자재: 전북도민 우선이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등)을 실행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반영을 개선(5점 범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대형공사 및 분할 가능한 건설공사는 설계단계부터 분할견도, 도내 건설공사 외지업체 수주시 하도급 확대,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지분 확대하여 건설 일자리 창출, 건설자재 및 장비 도내상품 우선사용, 신규사업 발굴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건설·건축 관련 일자리 창출의 실현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군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 시·군은 인센티브 부여로 도비 우선지원(상위 1~3위), 부진 시·군은 페널티 적용으로 도비 차등지원(하위 1~3위), 일자리 창출 우수 공무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정의 3대 과제인 일자리, 민생경제회복, 새만금 중 건설일자리 창출분야 우수 시·군에 주민 편의사업 등 시책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보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터뷰·정리: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유년시절부터 키운 건축의 꿈  
건축은 시대를 대변하는 척도**

어린시절부터 집을 만드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는 김행범 건축사는 아직도 동심을 간직하고 있는것 같다. 아마 그런 순수함 때문에 수많은 교회 건축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행범 건축사를 만나보았다.

김행범 건축사  
도시 건축사사무소(전남)



**건축을 접하게 된 동기**

유년시절 목수이신 외할아버지께서 고향 시골집을 직접 지으셨다. 터를 정리하고 줄 띄어 기초를 잡으시고, 대패질을 하여 문틀을 세우고 장선을 깔아 마루를 만들고 손서대로 기둥과 트러스를 잡아 상냥식을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큰방, 공부방, 부엌, 방, 마루 등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재미는 내겐 경이롭고 처음으로 맛보는 건축에 대한 큰 경험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던 빈터에 생전 처음으로 할아버지 손에 의하여 우리의 보금자리가 생긴 것이다.

커서 무엇인가를 직접 만드는 자가 되리라,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드는 창조자가 되고 싶었다. 할아버지처럼... 아직도 할아버지께서 대패질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나무결의 냄새가 내 콧등에 머무는 듯하다.

**건축을 함께 있어서 죄우명**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의 모습들을 대변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건축 작업은 그 시대와 관련 없는 작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건축사는 건축물을 통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여과없이 잘 표현하고 후손들에게 또는 외국인들에게 커다란 교육의 선물이요, 그 시대와 지역을 이해하는데 증거물들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지금과 같은 초현대적 건축물이 디자인되었다면, 그 건축물은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 과거의 건축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은 그 시대의 삶을 보고 싶어하는 진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건축사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마치 지구가 아닌 곳에 지어지는 듯한 정체불명의 디자인 기법들에 놀라움 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최소한 한국 땅에는 한국인들의 삶을 보여 줄 지역적 건축물이 필요하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건축사는 시대를 초월하는 특별한 작품에 욕심내서는 안된다. 욕심없는 특별한 건축은 다음 시대에 살 후배 건축사들이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활동, 작품 활동에 대한 소개**

나의 주요 프로젝트는 교회건축으로 그동안 100여개의 작품을 만들었다. 광양에 있는 광양교회, 여수에 있는 평강교회, 순천에 성광교회와 대표작이다. 지금은 병원설계와 플랜트 설계가 주 종목이 된 듯한 느낌이 다. 최근 아이방 산부인과 병원을 완료하였다. 이 지역에선 아마 제일 큰 단일병원이 될 듯싶다. 모든 설계는 20년동안 파트너인 이강근 건축사(구조기술사)와 함께 하였다. 오랜 벗이자, 후배이자, 동창이기에 짐이 한결 가볍고 즐겁다.



순천성광교회(2004년)



사람의 집짓기 준공 및 입주식(2003년)

**건축이외의 사회활동**

20년 가까이 국제 봉사단체인 로타리 클럽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나의 직업 봉사로 사람의 집짓기 등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에 순천남문클럽회장, 그 후 총재지역대표 연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약76개 클럽, 3300명의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로타리 생활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올해 초 로타리 재단 프로그램의 하나인 GSE(문화교환)단장으로 미국에 한달간 체류하며 여수 해양엑스포,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우리 지역 문화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다.



아이방병원(2010년)

**향후 활동 계획과 후배들에 대한 당부**

글로벌한 무한 경쟁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선 능숙한 외국어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평생 해야 할 직업이기에 멀리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력이 갖추어지면 일도 일이지만 세계여행도 시도해 볼 계획이다.

업무적으로는 친환경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 최근 도시마다 건축을 마치 시각적 장식품으로 보려하는 경향에 너무 다분하다. 그렇지만 건축의 성능과 기능에서 삶의 질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건축이 되어야하기에 친환경 설계기법을 도입한 디자인에 주력하고 싶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기에 끊임없이 연구 노력할 계획이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 중 하나인 건축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효율적인 도시를 창조하고 행복한 인간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사회 지도자로서 모순된 각종제도를 개선하여 자유로운 생각 위에 창조적 자유를 누리고 보다 송고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주시길 부탁하고 싶다.

박종호 건축사 기자 k21024@chol.com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교의 건축전공을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창의적인 꿈과 힘을 가꾸는 수련의 장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는 공과대학이 설립된 지 15년이 지난 뒤인 1962년 3월 1일에 토건과로 신설되어 다음 해인 1963년 3월에 토건과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건축공학과와 토목공학과로 분리되었고, 1974년 2월, 익산캠퍼스에서 전주 덕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공대 1호관에 위치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의 역군을 길러내는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까지 2000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고, 이들은 학계의 교육자와 중추적인 연구인력으로, 정부 부처의 공무원으로, 건설회사의 중간간부로 근무, 또는 건설회사,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등 개인 사업을 하면서 본과의 위상을 빛내주고 있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해외 우수대학에서 계속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 본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각종 대학평가에서 우수학과로 선정

또한 그 동안 대학교육평가협의회(2000)와 중앙일보 (2001) 등에서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우수학과(교수연구활동분야 3위, 졸업생 자격증 보유 순위: 건축사 8위, 기술사 3위 등)로 선정된 바 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을 비롯하여 전국 콘크리트 기술대상,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한국농촌건축공모전 대상 등의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고 건축분야의 각종 학술발표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비롯 우수논문상을 매년 수상해 오고 있으며, 양으로 이보다 더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문화 및 기술교류 증가에 따라 급속한 속도로 유입되는 외국 건축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이고 세계수준의 건축기술배양이라는 국가적요구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실질적인 지식습득에 주력

이를 위하여 본 학과에서는 이론수업과 실험실습수업의 병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식습득에 주력하고 있다. 본 학과는 건축설계 스튜디오들을 비롯하여 건축재료실험실, 건축구조실험실, 건축공동실험실, 그리고 건축음향실험실 등의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 건축재료실험실에서는 건축재료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 건축재료의 재활용에 대한 실험은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역

##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젊은이들을 전문 엔지니어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활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최초로 보유한 건축공동실험실에서는 건축물의 내풍실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공간건축물의 풍환경 연구와 장경간구조물의 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매우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음향실험실 또한 최신의 실험장비와 실험시설들을 보유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음향설계 수행은 물론 대공간건축물의 음환경 연구와 확산체 및 흡음재 등의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 실험실은 전문엔지니어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 및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수요가 증대될 분야들로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주목된다 할 수 있다. 또한 방학 중에는 농어촌 집고쳐주기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의 봉사활동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 전문건축인 배출을 위한 공학인증 프로그램 운영

최근 수년간 본 학과는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학제분리와 다시 건축공학과로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건축분야가 당면한 시대적 요구와 시장의 수요 그리고 향후 건축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는 건축부를 바라보는 창조적인 안목과 공학적지식의 균형을 이룬 전문건축인의 배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학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과는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배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절감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건축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 : 정대업 교수 daeupj@bnu.ac.kr  
학과사무실 : 063)270-2276



농어촌집고쳐주기 자원봉사 활동



졸업작품 전시회



졸업작품 전시회



초청강연회



친환경 건축물 답사



- | 소방시설 설계
- | 소방공사 감리
- | 다중이용 완비증명
- | 위험물 인허가

#### 대표이사 배점복

502-260 광주광역시 서구 송촌동 885-11 금호베어스타운 A동 221호  
전화) 062. 385. 0126-7 팩스) 062. 383. 0127 E-mail) saenul@gmail.com



2010년 10월 10일(일)

### 학업성과를 가늠케 하는 건축작품전

물결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 가을은 수확의 계절 2학기를 맞아 각 대학 건축과에서도 짙게 지난 1년을, 길게는 4~5년의 학업성과를 가늠케 하는 건축작품전이 한창이다. 머지않아 건축계의 주축으로 성장할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몇몇 대학의 작품전을 소개한다.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9월 8일~11일)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및 건축공학과 졸업논문전시회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교내 삼성문화회관에서 치러졌다. 건축학과 전시회의 주제는



'전북대학교 리노베이션'이었으며, 조병수 건축가 및 이신재 동서건설 대표이사 사가 함께 하는 포럼도 개최되었다.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전 (9월 30일~10월 2일)



2010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의 건축 전시회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남대 공과대학 2호관에서 열렸다. 이번 건축전은 건축학 및 건축공학



전공 학부생들의 작품전시와 더불어 구가건축 조정구 건축사와 남화도건 최상준 CEO 초청강연회가 진행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10월 7일~9일)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전시회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우석홀(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강연회는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홍



웅 건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10월 12일~15일)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교내 호심기념도서관 5층 전시실에서 열릴 예정

이다. 한편 11월 2일에는 졸업전시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헤이리마을에 대한 건축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전 (10월 27일~29일)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전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공과대학 1호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학과는 11층에서 건축공학과는 9층에 각각 작품을 전

시하며, 27일에는 엄승용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28일에는 신남수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초청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다.

학생기자 공동취재 : 김소희(전북대), 전남대(이수정), 순천대(이태현), 광주대(이훈애), 조선대(이슬기)

### 제4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금상

#### - 'Green Wall' - 순천대 조경식·최덕화

최근 길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공공 디자인 불과 몇 년 전에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종류의 가로등, 벤치, 쓰레기통이었으나 최근에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각색의 공공디자인을 볼 수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개발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으며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장벽을 없애는 소통하는 벽'이었다.

제4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공공방음벽 디자인 분야' 금상을 수상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조경식·최덕화의 'Green Wall'은 주변과의 조화로움과 독특한 마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3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32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금상 두 작품 외에는 상 3점, 동상 5점, 특선 10점, 입선 18



점 등 모두 38점이 입상작으로 뽑혔다.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태현 학생기자 lh18@naver.com

### 동신대 문화건축학부 이모저모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에서는 지난 9월 15일, 요즈음 한국의 젊은 건축가로서 촉망받는 위진복 건축가(도시건축공간디자인(U) 소장)를 초청하여 영국의 건축경향과 창조적인 사고에 관한 다양한 작품소개와 강연이 있었다.

또한 9월 30일에는 졸업생인 박진이·황명호 선배가 특강강사로 초청되셔서 재학생들에게 대학생들과 사회진출이라는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되는 동계 필리핀 영어연수프로그램에



우리학과의 김윤지(4학년), 김소륜(1학년)이 선발되기도 했다.

#### 대학단신

- ▶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졸업전시회  
일시 : 10월 26일 ~ 29일  
장소 :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 ▶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일시 : 11월 둘째주(추후공지)  
장소 : 전북도청 내

- ▶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전시회  
일시 : 10월 27일 ~ 29일  
장소 :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일시 : 10월 29일 ~ 11월 2일  
장소 : 전주대학교 스타타워 4층



III (주)해피아키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성울

Tel.062)365-1333~4 Fax.062)365-1336 광주 서구 화평동 70-12 운광빌딩 5층



###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 11/4(목)~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실에서  
— '회복과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



광주지역에서 건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건축문화를 대중화하고, 광주라는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이름답고 쾌적한 창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개최된다. '회복과 어울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민을 물론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11월 3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전야제 행사 '건축인의 밤'을 시작으로 11월 4일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문화제 행사가 진행된다.

4일간 열리는 전시행사로는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전시', '독일건축전 전시',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전시' 행사가 진행된다. 시민·학생 참여행사에는 '사 진공모전 입상작 전시',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시내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무료로 투어를 진행하는 '시민건축투어', 건축 관련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무료 상담 행사인 '건축 민원상담' 등이 있다. 특별행사에는 '아름다운 APT 전시회'와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장애 없는 세상만들기 시설 자료 전시'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연중 총3회로 분산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끝으로 열리게 되는 '건축문화 심포지엄 III' 강좌가 5일(금) 1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된 송효상 건축사의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 전라북도건축문화제 개최

— 10/12(화) ~ 15(금)까지 전라북도청내에서  
— 세계여성건축사협회 솔랑주회장 강연 예정



전북지역에서는 10월 12(화)일부터 15(금)일까지 전북도 청사내(강당/갤러리/회의실)에서 전라북도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전라북도와 전북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 및 주관을 맡아 진행되며 행사 파트별 일정으로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시상식이 12일 10시 30분 진행, '건축사 시화전이 도청 1층 민원실 앞에서 전시, '건축영화상영이 도청 1층 영상관에서 문화제기간 중 오후 2시와 5시 1일 2회 상영, '건축작품전이 도청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이와 함께 '우수설계, 시공사례 발표'가 10월 14일 오후 2시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이

길한 건축사의 '창의적인 우수설계 사례'와 김주석 건축사의 'Design, Designer, Designers'란 주제로 진행되며, 15일 오전 10시 동장소에서 '학술발표와 오후 2시 '건축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2010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에 참여하는 세계 각국 100여명의 여성건축사들을 초청, 그들의 작품전시와 함께 건축문화상 시상식에 참여하여 시상과 아울러 '세계 건축 흐름과 전망'이란 주제로 세계여성건축가협회 솔랑주(Solange d'Herbes de la Tour)회장의 강연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건축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하고 세계여성건축사들이 참여하는 이번대회를 통해 전북 건축상을 모색하고 세계건축문화 교류는 물론, 세계 80여개 국가에 전북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아울러 건축문화를 세계에 널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광주에서 개최

— 11/2(화)~5(금)까지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에서 개최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기간중에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가 광주에서 개최된다.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일본건축사연합회의 주최로 진행되며 광주건축사회가 지원하게 된다.

각국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하며 순천 낙안읍성 민속촌 탐방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오세규 교수의 건축세션 의제 발표 및 환송 만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제 행사인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광주 개최와 건축·도시문화제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광주시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 2010년 하반기 전국 건축문화행사 일정

행사명	일시(월)	장소	행사명	일시(월)	장소
경남건축대전	10/5-22	청원컨벤션센터 3호관	제1회 한국건축비엔날레	10/26-31	영양구림
경북건축문화제	10/8-11	김천문화예술회관	전남건축인의 밤	10/26	영암 상요읍 호텔컨벤션센터
전라북도건축문화제	10/12-15	전북도청 내	충남건축문화제	10/29-11/1	아산 청소년고려문화센터
대전건축문화제	10/14-20	대전광역시청	울산건축대전	10/30-11/2	울산문화예술회관
2010 디지털건축대전	10/15	추후 안내	충북건축문화제	11/1-6	청주 예술의전당
인천건축문화제	10/16-20	인천중흥예술회관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11/2-5	광주 라마다프라자호텔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10/20-24	고양시 컨텍스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1/4-7	김대중컨벤션센터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	10/20-24	고양시 컨텍스	제주건축문화제	11/10-14	제주문화회관
2010 전국건축사대회	10/22	고양시 컨텍스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11/17-21	두산아트더 재스나 전시장
2010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10/23	청주대학교	경기도건축문화상	12/1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건축문화 사랑

— 창간1주년을 맞이하며

'건축과 도시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간한 '건축문화사랑'이 첫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건축문화사랑'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의 보답하기 위하여 11월에 발행되는 제12호는 24면 분량의 창간특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입장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의미있는 신문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북회장 이성엽  
편집인: 박종근  
전담기자: 곽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현,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장성호, 송명욱, 김기범,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주거 공간의 지수는 생활 동작에 필요한 자세와 도구 및 가구 등을 검토한 후 산출되어야 한다.

이 표지는 인간의 다양한 자세를 표현하는 인체치수의 형상화를 표현한 것이며, 이를 고려한 다양한 공간 구성 방법을 모색하여 생활과 공간의 기능을 극대화 시켜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건축문화 사랑 신년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박동준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50만원  
박종근 | (주)포우 건축사사무소 50만원  
정일중 | (주)에이알 건축사사무소 30만원

###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미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연락처를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영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2010년 10월 10일(일)

### '2010 건축의 날' 행사 국립중앙박물관에 개최

- 건축인의로서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는 '건축인의 선언' 채택



'2010 건축의 날' 행사가 지난 10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해양부 정창수 제1차관과 정명원 국가정책위원장이,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진 회장 등 각계인사와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39명을 표창하였으며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인의 윤리관 및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추구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인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아부다비 진주 뮤지엄, 리아드 북쪽 신도시 등 해외 진출건축 작품의 전시회를 열고, 건축 영화를 상영하는 등 부대 행사도 마련하였다.

한편 이날 표창수여식에서 광주지역은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김화현 건축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북은 연안 건축사사무소 이재희 건축사가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주)미래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성수 건축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전남건축사회 후원으로 개최

- 영암 구림 한옥 마을에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오는 10월 26일부터 6일간 영암 구림 한옥마을에서 '천년의 유혹 녹색의 감동'이란 주제로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가 개최된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한옥박람회는 전남도와 영암군 공동 주관과 전

남건축사회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전남도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주제관 개관식 등 총 35종의 현장체험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전남건축사회에서는 연계행사로 26일 오후 6시부터 영암군 삼호읍 호탈현대목포 컨벤션홀에서 전남도와 시·군 건축관련 공무원, 전남건축사회원 등이 참석하는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오후 5시에는 동정소에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업 교수의 근대건축에 관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박승국 전남기자 ksk830710@hanmail.net

### 2010 건축사자격시험 5개 권역에서 열려

- 올해부터 응시자격 변경으로 응시자 대폭 줄어



지난 9월 12일, 전국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린 2010 건축사자격시험이 광주권에서는 광주전자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건축사자격시험은 올해부터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 2001.8.14)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조건 사항

으로 응시가 불가능하며,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만 응시가 가능하여 지난해 보다 응시인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지난해 광주권에서는 426명이 응시하였으나 올해에는 161명이 응시하였다. 이번 광주권 평균 응시율은 85.7%이며 합격예정자는 11월 12일에 과목별(대지계획·건축설계1·건축설계2)로 발표할 예정이다.

###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 2, 3차 강좌 진행해

- 4차 강좌 : 10/21(목) 15시, 5차 강좌 : 11/11(목) 15시 예정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과 10월 6일에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 2, 3차 강좌를 진행하였다. 9월 16일에 열린 제2차

강좌에서는 전남대학교 신남수 교수의 '건축사관'이란 주제와 대한건축사협회 이창을 부회장의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기준'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10월 6일에 열린 제3차 강좌는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인 정성창 교수의 '마케팅과 재무 운영관리와 광주시도 시디자인과 이종근 과장의 '도시디자인 정책 성과와 비전'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박승국 전남기자 ksk830710@hanmail.net

### 광주건축사회, 광주시복싱선수단 격려 방문

- 신정철 회장,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결과 있을 터"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지난 10월 1일 무등경기장 복싱체육관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시복싱선수

단을 찾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정철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이번엔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하며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매년 자매결연을 맺은 스포츠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광주건축사회, 후쿠오카 건축교류전 참관 위해 방일

지난 10월 7일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교수, 건축사 30여명은 후쿠오카 건축교류전이 열리는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에 참관차 일본을 방문하였다.

3박 4일 동안 방일한 참관단은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가 열리는 기타큐슈와 후쿠오카, 고베, 오사카를 방문하였으며 전국대회의 일본 건축작품 전시회와 세미나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하였다.

한편, 이번에 열린 전국대회에 광주건축사회 회원 작품과 이 지역 대학생 우수작품 등이 전시되어 일본 건축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건축사회는 1997년부터 매년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 양국 간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건축교류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내년에는 광주에서 교류전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승국 전남기자 ksk830710@hanmail.net

###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준공식



시각장애인 8명과 도우미 1명이 거주하는 막달레나의 집이 지난 10월 6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막달레나의 집은 장애없는 세상만들기의 네번째 프로젝트로서 주최는 광주광역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이며, 주관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공공봉사위원회이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생들이 참여하였고 (주)이건정호와 건축사사무소 미기은 등이 협찬하였다.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2008년을 시점으로 쌍촌종합사회복

지관과 남구 실로암센터를 리모델링 하였고 조대치과 병원 앞 유니버설 버스정류장도 설치하였다.

이번엔 준공한 막달레나의 집은 신축으로 처음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장애인이 생활하는 건축물로 고려할 수 있었다. 대지 113.1㎡, 연면적 127.28㎡, 지상2층 규모로 각 침실은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순미 공공봉사위원장은 "4개의 BOX가 서로 어우러 빛을 내고,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 막달레나의 집과 같은 건축물이 점차 광주에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디자인 컨셉에 담았다"고 밝혔다. 2010년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는 복구에 있는 시각장애인선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박승국 전남기자 ksk830710@hanmail.net

#### 전북 건축계 동정

- \*입회**
  - 김종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AT
  - 전북 김제시 요촌동 595-4
  - 이영준 건축사 / 웅7장이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요촌동 595-4

#### \*변경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권영욱 건축사 / 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마동 55-72
- 강중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소리재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33-8

#### \*부고

- 이 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건사
- 장모상 - 9월 27일(월)

#### 전남 건축계 동정

- \*변경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양승길 건축사 / 양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07-2
  - 전우석 건축사 / (유)우석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381

#### 광주 건축계 동정

- \*폐업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이하중 건축사 / 대양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중흥동 642-4

#### \*변경 (소재지 변경)

- 안성섭 건축사 / 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금호동 846-6
- 조준호 건축사 / 일호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쌍봉동 1224-3 2층

#### \*부고

- 임이기 건축사 / 푸른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9월 12일(일)
- 박상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상 에이전시
- 빙부상 - 9월 12일(일)
- 이주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담
- 부친상 - 10월 3일(일)

#### \*결혼

- 임대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환경
- 차녀 - 10월 9일(토)

수필

웃통 벗는 사람이 이긴다?

이병우  
보해임조 이사

선배 한분이 '싸움의 정석'으로 자주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웃통 벗는 사람이 이긴다'이다. 귀신은 겁내는 사람에게 덤벼든 다면서 무엇보다 강다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이 기술 덕분인지 오랜 기간 싸움의 고수로 인식돼 왔다. 또 강단이 있는 인물로 인식이 돼 사람들이 뭘수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덕도 많이 봤지만 반대로 불협화음도 많이 생겼다. 승부 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 전략도 치열한 인생행로에서 때론 유용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인생을 바꾸는 게임의 법칙

게임이론에 '도라이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인생을 바꾸는 게임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비법으로 '도라이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과거의 이라크 후세인과 북한의 김정일이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미국과 대항하지 않고 바로 항복하겠지만, 북한이 도라이 타입이라면 죽음을 감수한 격렬한 항전을 해올 것이므로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상대가 도라이 타입이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좋고, 상대가 도라이 타입이 아니라면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도라이 전략

강자인 상대의 공격을 막는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상대에게 도라이처럼 보이는 방법이다. 유감스럽게도 어느 사회든 집 가족이나 다른 조직 안에서 순하고 착한 사람은 그 때문에 대접을 받지 보다는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람 좋으면 꼴찌(Nice guys finish last)'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경우 한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전략이 도라이 인척 행동하는 전략이다. 이 도라이처럼 보이는 작전에는 절대로 주의할 점이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화를 내고 싸움을 하되 가능하면 자신이 도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상대와 직접적으로 붙지

는 말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과 일일이 싸우기 싫어서이다.

도라이라고 인식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남에게 자신이 독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소문을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게임이론에서는 이런 것을 명성 또는 악명 효과(reputation effect)라고 한다.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60년대 유엔 회의장에서 구두를 벗어 연단을 내려치고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기행으로 '날 건드리면 똥짓을 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서방에 전달했다. 후에 이런 비상식적인 후르시초프의 외교적 행동은 미리 계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칭기스칸은 전쟁시에 투항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저항하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고 선언했다. 운 나쁘게 처음 저항한 성의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의 함락과 함께 모두 죽었다. 그 다음 성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바로 성문을 열어 항복했다. 이 또한 칭기스칸이 자신의 명성을 쌓아서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고려는 몽고 침략에 맞서 30년동안 버텼다. 하지만 칭기스칸의 말대로 그런 대학살은 없었다. 몽고 군의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삼류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남의 힘을 쓰며, 일류는 남의 머리를 쓴다.

이 도라이 전략에도 약점이 있다. 그것은 더 큰 도라이를 만났을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도라이 전략을 쓰다가 미국판 도라이인 부시를 만나 나라도 헛고 자신도 죽임을 당했다. 웃통도 상대를 뺏가면서 벗어야 한다. '삼류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남의 힘을 쓰며, 일류는 남의 머리를 쓴다.' 한비자의 말이다. 21세기 경영 키워드는 공감(empathy)이라고 한다. 이젠 혼자서만 잘하는 원 플레이어(One Player)보다는 남과 함께 뭉쳐 가는 리더십이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덕목이다. 도라이 전략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안드로메다 은하에게

문창식 건축사 /사인  
우리 건축사무소 대표

어둠이 깊어와  
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원반 모양에서의 이슬빛  
은우리 사이로  
200만 광년을 달려오는 그대

별들의 비밀  
머리가 하얗게 자센  
도인만이 아는 건 아니겠지요  
8분10초를 달려와 맞는 아침,  
나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요?

혹시 알아요 그대 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달려와  
지구별에 내가 있는 건 아닌지,  
방금 개화한 이름 없는 야생화  
별빛으로 핀 것이라고 믿어요  
사랑을 꽃피우느  
모든 이의 마음까지도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박민규 작 /정명소설

서민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저자는 서두에서 1982년을 이렇게 묘사했다. 다소 호들갑스럽게.. "37년 만에 아간통행금지 해제되고, 중, 고생의 두발과 교복자용화가 확정됨은 물론, 경남 의령군 공유지서의 우범곤 순경이 카빈과 수류탄을 들고 인근 4개 마을의 주민 56명을 사살, 세상에 충격을 준 한 해였다. 또 건국 이후 최고 경제사범이라는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가택어음사기사건과 부산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고,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이 자행되고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고, 미국의 우주항복선 콜롬비아호가 발사되고, RMx으로 비운의 복서 김득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레이 '볼름' 맨시니와의 WBA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사망한 것도 바로 그 해의 일이었다." 1982년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으며 누군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삼미슈퍼스타즈! 우리가 좀 더 'dynamic'해지던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탄생한 인천을 연고지로 한 구단이었다. '슈퍼맨'을 마스코트로 삼았던 삼미는 그러나 1983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1985년에 매각되기까지 '어려운 공은 치지 않고 집기 어려운 공은 포기하는' 만년 꼴찌 팀이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1등만 기억하는 사회, 무한 경쟁을 위해 숨 쉴 틈 없이 내달라는 우리들에게, 삼미슈퍼스타즈는 진정으로 되짚어 봐야 할 팀이 아니냐는 역설을 하고 있다. 돌아보면, 80년대 우리 모두는 피해자였으며 모두 꼴찌였다. 소설이 비유하는 바, 삼미의 '슈퍼스타'들은 바로 우리들이었다. 타석에 10번 들어서면 안타를 2번 칠까말까 한, '1할2푼5리의 승률'을 지닌 '슈퍼스타'말이다. 이 세상엔 승자보다 패자가 많다. 학교에서의 경쟁에서도 1할2푼5리 정도의 승률, 대학입학 때, 취업 경쟁 때, 우리는 TV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에 까지 않는다. 한 사람의 성취에 박수를 치는 삼미슈퍼스타즈같은 삶이 곧 우리 서민들의 삶이다. '키치를 지향하는 듯 한 표지나 가벼운 듯한 작가의 문체에서 유쾌함을 얻을 수 있지만, 글을 읽고 난 후의 뒷 맛은 꽤 씁쓸하다. 그러나 어쩌리, 어차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야 주어진 것을 사랑하는 것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 최선이 아니겠는가?

건축사 Gallery



코스모스 53.0×40.9cm 캔버스유화  
언덕끝  
푸른산  
파란하늘  
바람에 실려  
코스모스와 함께한 하루  
난 달님이 될지도 몰라!  
강성철 건축사 작

Photo



갈대의 향연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은 우리네 가을들녘이다.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빛과 어우러진 갈대의 모습에 가끔은 넋을 잃곤 한다. 오늘 저 갈대 밭에 사랑의 속삭임이라도 들려 오는 듯하다.  
촬영지, 복내습지 촬영, 박종호 건축사 기사



무등의 비록함을  
12로  
세계적으로!



알고 계셨나요?

##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은 우리고장 광주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광주전자주식회사는 1989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설립된 광주지역 독립법인입니다. 2조원 규모의 호남제일기업으로써 고용인력증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광주전자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 한다는 신념아래 전사녹색경영을 통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하남산업단지 내 삼성광주전자



저렴한 유지비+인테리어까지 생각한 1:1 맞춤바람은  
오직 **내고장 광주기업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뿐입니다.



### B2B 서부 1지점 관할 전문점

<p>☎ 삼성무동특판 062)365-6900</p> <p>☎ (주)센도리 062)268-5811</p> <p>☎ (주)한국엘이씨 062)521-2341~2</p> <p>☎ (주)에이엔비 062)603-4787</p> <p>☎ (주)히우전공조시스템 062)511-0006</p>	<p>☎ (주)에이원공조시스템 062)681-8504</p> <p>☎ (주)오성에어텍 062)971-7742</p> <p>☎ (주)삼성공조시스템 062)952-0048</p> <p>☎ 그린공조시스템 062)385-7300</p>	<p>☎ 순천 동부이엔에스(주) 061)722-0850</p> <p>☎ 순천 티에이에스주식(주) 061)721-4798</p> <p>☎ 여수 삼성냉열시스템(주) 061)653-2025</p> <p>☎ 광안 (주)디에스시스템 061)795-6631</p> <p>☎ 목포 (주)원빛시스템 061)247-9500</p>	<p>☎ 전남지역 나주 (주)하이로스 061)336-0071~2</p> <p>☎ 전주 디지털공조 063)277-7999</p> <p>☎ 전주 (주)삼성에스에이비공조 063)226-0419</p> <p>☎ 전북지역 전주 (주)일신공영 063)212-9131</p> <p>☎ 전주 (주)정연엔지니어링 063)244-7777</p>	<p>☎ 군산 (주)삼성특판공조 063)451-7800</p> <p>☎ 익산 (주)한국셀비 063)832-7152</p> <p>☎ 익산 두일문조시스템(주) 063)841-5800</p> <p>☎ 익산 삼성동성에어컨(주) 063)855-8700</p>
--	---	---	--	---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획득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벤처기업 등록

www.bs-base.co.kr

# 탄탄하고 경제적인 기초공사 - 반석기초이앤씨(주)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팽이기초공법 (6연식형/현장타설형)

팽이기초공법  
6연식



동신고 체육관

팽이기초공법  
현장타설형



잠신 중학교



군산인력개발원



전남대 학군단



105 포병대대



서정동 주민센터

## 마이크로파일 공법



장성 문화예술회관



연천초

## 그라우팅 공법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이사 문형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 108호 TEL. 031)577-1673 FAX. 031) 577-1674